■ 그림 여행

여름밤
(Summer Night c. 1899)

하랄드 솔베르그
(Harald Sohlberg, 1869 - 1935)

캔버스에 유채135.5 cm x 114 cm
노르웨이 국립 건축 디자인 미술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는 북반구에서도 북쪽 끝머리에 위치한 나라이다. 지리적 조건만큼 기후도 극단적이다. 특히 겨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 게다가 오전에는 9시가 넘어야 해가 겨우 나타나고 오후 2시면 이미 어두워져 버리니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길고 어두운 겨울에 비해 여름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기온은 선선하지만 이번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어두워지지 않는 밤, 즉 백야가 끝없이 계속된다. 해가 지지 않는 밤을 어떻게 견디면서 살 수 있는지 또 의문이 든다.

노르웨이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그려 '노르웨이 국민화가' 로 불리는 하랄드 솔베르그의 그림 '여름밤'에 그 백야가 펼쳐져 있다. 호수, 혹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집의 발코니에서 밖을 내다보는 구도의 그림 속에 밤은 없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지평선 너머에 아직도 햇빛이 밝다.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밤이라는 사실을 암시할 뿐이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을 것이다. 발코니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 술과 음식, 마시다 만 컵들, 그리고 대충 흩어져 있는 의자들이 조촐한 파티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발코니 난간을 따라 심어 놓은 꽃들은 밤인 줄도 모르고 활짝 피어 짙푸른 화면을 따뜻하게 수놓아 준다.

왼쪽 화면에 그려진 집과 테이블 위의 파티 흔적이 없다면 그림은 완벽한 풍경화가 될 것이다. 광활한 하늘 아래 푸른 물과 산, 나무들이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채 조용히 숨쉬고 있는 노르웨이의 자연 풍경을 이룰 것이다. 그 옆으로 그려진 집 때문에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구의 북쪽 끝 극단적인 지리조건, 기후조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은 펼쳐지고 또 그 속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노르웨이인이라는 것을 솔베르그의 그림이 보여준다.

김 동백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효섭
LA/OC/San Bernardino/Riverside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장례 인도해드립니다.

이효섭 장의사
FDR 4701
시신 방부사
EMB 9702
장례보험
4287740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장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요.

매장, 화장, 장례보험
풀러턴 소재 스캇 멕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경력: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C.714.951.2520
O.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ANG
탕
순대국 돼지국밥 전문점
부에나팍 2호점
술 판매합니다.

모둠수육

매운소갈비찜

돼지머리편육

족발

보쌈

옛날 불고기

Buy 1 Get 1
Free
(Beer Only)
*9월 30일까지

설렁탕 / 도가니탕 / 감자탕 / 선지해장국 / 뚝배기 불고기 / 감자탕 전골 / 순대접시 / 순대전골 / 냉면

플러튼 본점 Open: 10am~10pm
714.680.9550
1937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3

부에나팍 2호점 Open: 10am~9pm
714.266.0309
72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라스베가스 3호점 Open: 9am~12am
702.462.2236
5645 Spring mountain Road Las Vegas, NV 89146